THANK YOU 119

제60주년 소방의 날

'소방의 날'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11월 9일, 올해로 60주년을 맞는 '소방의 날'의 역사와 의미를 살펴본다.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재난과 맞서온 소방의 역사

소방(消防)은 화재를 예방, 경계하고 진압하는 것이다. 소방의 역사는 고대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조선시대『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금화(禁火)로 명시되어 있다. 세종(世宗) 8년(1426) 2월에는 병조(兵曹) 아래 금화도감(禁火都監)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관서로 알려져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매년 불조심 강조 기간을 정하고 11월 1일에 유공자 표창, 불조심 캠페인 등의 기념행사를 이어왔다. 이후 1963년부터는 내무부가, 1999년부터는 행정자치부가, 2005년에는 소방방재청이 주관하여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소방공무원을 격려하고, 소방을 비롯한 안전 업무 종사자의 긍지와 보람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다.

119번은 언제부터 썼을까

1991년 소방법을 개정하면서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했다. 현행 소방법 제14조를 보면 "시도(市道)는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불조심에 관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화재나 구급·구조 상황 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숫자는 바로 '119'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119를 긴급 신고 전화로 정했을까? 답을 알기 위해 우리는 가슴 아픈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우리나라에 소방서가 최초로 생긴 것은 1925년이다. 당시는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일본의 소방 제도가 도입될 수밖에 없었다. 1926년 도쿄와 교토 전화국에서 다이얼 시간이 짧아지도록 지역번호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9를 채택함으로써 119번이 탄생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어져 안전신고센터 번호로 119를 사용하는 중이다.

출처 국가기록원

전국 불조심 강조 기간 소방시범 훈련대회(1964년)

소방관 사열식 및 소방훈련 경연대회(1960년)